

# 12

##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김진영

고대문화재연구원

- I. 머리말
- II. 초기철기시대 편년과 분포유형
- III. 지형 및 권역 설정
- IV. 유적 검토
- V. 맺음말



#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김진영 (고대문화재연구원)

## I. 머리말

초기철기시대는 한국고고학에서 사용되는 시대구분 용어로, 철기시대 초기와 원삼국시대로 구분하기도 하고, 문헌사에 등장하는 실체를 적용하는 등 연구자간 견해가 다양하다. 고고학사전에서 의하면, 청동기시대에 이어서 새로이 유입된 철기문화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즉 한반도에서는 철기의 유입과 이미 정착되어 있던 발달된 청동기문화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초기철기문화에 후기 청동기문화를 포함하여 B.C. 300년부터 서력기원 전후까지를 초기철기시대로 설정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철기시대 초기 또는 초기철기시대란 중원지역으로부터 철기가 수용되는 시기부터 삼한(마한·진한·변한)이 정립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포함하는데, 대체로 기원전 4세기 후반부터 기원전 1세기 전반까지의 기간을 그 대상 시기로 한다. 이 시대는 토기와 무덤, 금속기 등에서 물질자료의 변화가 확인되고, 이 시대의 묘제로는 석관과 목관이 알려져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앞 시기의 묘제인 지석묘가 부분적으로 잔존하는데, 대부분은 석관묘와 목관묘이다(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2009).

초기철기시대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뚜렷한 정치체가 형성된 기원전 3~2세기를 물질문화만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명칭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역사적·문헌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고조선시대”라는 시대개념을 명명하기도 하였다(이청규 2007; 송호정 2007; 정인성 2019; 조진선 2020). 이 같은 개념은 우리 역사에서 기원전 2세기경까지 가장 강력했던 대표 국가인 고조선을 내세우는데 적합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지역사회가 형성되던 시기였음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초기철기시대는 250년 정도로 고고학적 시대구분 중에서 가장 짧게 존속하지만, 선사사회에서 고대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대전환의 시작은 철기문화의 유입과 연동하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는 세죽리-연화보유형의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발달정도에 따라 2개 군으로 구분되며, 점토대토기와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공반한다. 하나는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공구류 중심이 출토되는 1군이고, 발달된 청동기문화와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원전 4~3~기원전 2세기경으로 편년되고, 호남지역에서는 만경강유역에서 집중된다. 다른 하나는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것과 함께 단조기법의 무기류가 출토되는 2군이고,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하며, 기원전 2세기 후반경에 영산강유역에 집

중되어 출현한다. 이와 같이 유사한 문화권을 지닌 호남지역 내에서도 시기적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었고, 전남지역과 같이 철기유물 출토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점토대토기로 초기철기시대의 시작을 짐작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연구는 발굴조사 자료의 영세성이 연구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자료를 수합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 확인되고, 소규모로 산발적인 점상분포를 보이며, 점유양상은 이전시대나 이후시대와는 다르게 마치 아수라장과 같다. 이같은 혼재된 양상은 초기철기시대의 양상을 논함에 있어서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고고자료와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하고,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가 확산하는 시점에 맞추어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초기철기시대 편년과 분포유형

### 1. 토기와 상대편년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 물질문화는 점토대토기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것은 신요소만이 부각된 측면이 강하며, 무문토기 등의 토착문화와 공반하고, 점차적으로 현지화되어 간다. 점토대토기는 초기 연구에서 한강유역발생설(이백규 1974; 한상인 1981)이 주장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요령지방에서 조형을 찾고 있다(박순발 1993·2004; 이건무 1994; 박진일 2000; 이청규 2000; 이형원 2005; 임설희 2010). 평양 남경 3호 주거지 출토 토기를 이중구연으로 보느냐 점토대토기로 보느냐에 따라 서북한지역 경유설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크게 발전하여 남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점토대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에서 계기적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로 변화되고, 대체적으로 점토대의 접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노미선 1998; 이재현 2002; 신경숙 2005; 국립광주박물관 2007; 박진일 2010; 임설희 2015; 김진영 2021). 점토대토기는 무문토기와 공존하면서 토착 무문토기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출현 이후에 기종의 변화와 토착 무문토기의 소성도, 제작기법, 태토 등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변화된 토기를 풍납동식토기, 중도식토기, 경질무문토기, 후기무문토기 등으로 칭해졌다. 경질무문토기<sup>1)</sup>는 김양욱에 의해 처음으로 칭해졌으며(김양욱 1976), 최성락에 의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다(최성락 1993). 해남 군곡리패총 보고서에서는 무문토기의 범주에 경질무문토기를 포함하였고(목포대학교박물관 1987~1989),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를 계승한 토기로 이해하면서 삼각형점토대토기를 경질무문토기의 개념에 포함하였다(최성락 1993·2002)

1) 풍납동성에서 처음 출토되어 풍납리식 무문토기라 칭해졌으며, 무문의 의미를 무문토기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여 이후 출천 중도유적에서 출토되어 중부지역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로 칭해졌다. 경질무문토기는 4개 지역군(한강유역,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 동진강유역)을 직접 답사하여 수집한 시료 15,000여점을 대상으로 태토의 조성분석, 흡수율측정, 경도측정, 성형방법, 제작수법, 문양, 색상, 두께측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무문토기와는 소성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칭하였다(김양욱 1976, 「한반도 철기시대토기의 연구」, 『백산학회』 20, 백산학회).

경질무문토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해석적 효과보다는 혼선과 오류를 야기하기 때문에 통합적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견해들이 있다(이숙임 2003; 노혁진 2015; 이창희 2020<sup>2)</sup>). 전국계토기문화의 일환으로 보면 요녕-한반도 서북지방을 거쳐 한반도 각지로 전파하면서 제지의 토착무문토기와 접변 및 상호작용의 관점과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그 양상을 파악하고 유형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노혁진 2015).

전남지역에서 점토대토기 특히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철기문화의 확산에 따른 인과관계가 밝혀진 토기이고, 현지의 토착무문토기와 접변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무문토기보다 발전된 토기를 생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남지역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는 광주 신창동저습지에서 초출하여 해남 군곡리패총에서 현지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김진영 2015; 이정호 ; ). 따라서 유적의 중요성과 상징성 등으로 보아서 신창동식토기와 군곡리식토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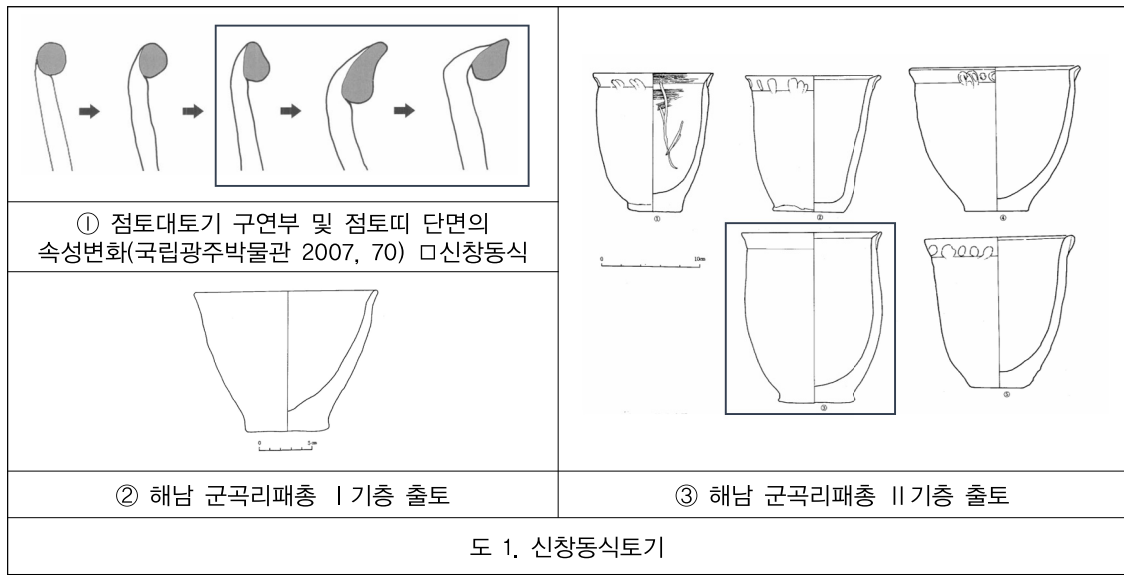
신창동식토기는 삼각형점토대가 부착된 토기군을 지칭하며, 군곡리식토기는 홑구연으로 변화된 토기군으로 경질무문토기로 칭해졌던 토기를 일컫는다. 이것은 전남지역에서 무문토기 이후에 등장하는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고, 전남지역만이 아닌 호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춘 용어라고 본다. 그러면 전남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에 확인되는 토기는 무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등이며,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상대적 선후관계가 인정되고, 서로 단절적이지 않으며, 공반관계를 이루면서 연속적으로 발전한다.

먼저, 원형점토대토기가 한반도에 유입된 시기는 기원전 5~4세기경으로 보고 있지만,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반영한 경우는 기원전 7세기경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 호남지역 출토 원형점토대토기 형식은 Aa식과 Ab식으로 구분하고,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전엽~기원전 1세기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신창동식토기가 등장하면서 소멸해간다. 군산 도암리주거지와 나주 운곡동 I-5호 수혈 출토품이 가장 이른 Aa식으로 보았다(김진영 2021a, 80).

신창동식토기는 광주 신창동저습지 I 기층에서 초출하는데, 원형점토대토기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로의 계기적 변화가 확인되었고(국립광주박물관 2007). 점토대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단면형태가 다양해지고 시간성을 반영한다. 신경숙은 점토대를 2형식으로 구분하였고(신경숙 2002, 50~91쪽), 임설희는 속성의 조합관계를 통하여 11개의 설정하였고(임설희 2010, 7~14쪽), 김진영은 5형식으로 설정하였다(김진영 2021b). 신창동식토기의 연대는 광주 신창동저습지 I 기층의 연대인 기원전 2세기 후반 무렵부터 지역에 따라 기원후 2~5세기까지 존속한다. 대표적 유적이 광주 신창동 저습지 기층과 해남 군곡리패총 II기층이며, 해남 군곡리패총 출토 신창동식토기의 특징은 지두흔이다. 지두흔은 점토대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면기법으로 홑구연화와 관련되고, 현지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점토대토기의 홑구연화는 기원전 1세기 중엽~기원전후에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임설희 2010, 35). 해남 군곡리패총 II기층에서 출토된 신창동식토기에서는 홑구연화 과정이 확인된다.

2) 제28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이창희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용어 문제를 ‘호남과 영남의 통합적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고, 이 혼란은 남한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기하였다. 이에 필자는 호남지역 내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가 초출하는 유적이 광주 신창동저습지이므로 영남지역의 늑도식토기와 같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신창동식토기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당시 공감대를 공유하였다.



보고서(보고서 표1)에는 II기층의 11~9층에서 출토된 발형토기는 ‘구연부 누르기수법’과 ‘흔적 지움’이라고 기록되었고, □ 안의 발(도 ?)은 ‘단면삼각형구연의 흔적을 지운 흔’이라고 기록되었다(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26·27). II기층(11~9층)의 편년이 기원전 2세기 후반~기원전 1세기 중반경이므로, 흠구연화는 기원전 1세기 중반이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창동식토기에서 점토대 하단부에 지두흔을 강하게 남기며,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은 지역에 따라 기원후 2~5세기까지 존속하고, 신경숙은 이러한 것을 흠구연화로 이해하고 기원후 2세기 전반 이후로 보았다(신경숙 2005, 75). 이와 같은 신창동식토기의 일부 형식은 본고에서 다루는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도 1-①의 □의 속성을 지닌 신창동식토기만을 대상으로 하며, 신경숙의 II A식, 임설희의 Bb식과 Bc식, 김진영 Ba식과 Bb식, Bc식이 해당한다.

신창동식토기의 흠구연화는 군곡리식토기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단선적이지는 않다. 해남 군곡리패총 I기층에서 출토된 발(도 1-②)은 무문토기와 유사하며, 도면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동체부 하단과 저부 이음에 깎기 수법’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군곡리식토기에 해당한다. 경질무문토기(군곡리식토기) 상한은 기원전 1세기 무렵으로 상정하였고(이강승 외 1996; 신경숙 2005; 최성락 2013), 기원후 2·3세기경까지 존속하면서 신창동식토기와 타날문토기 등과 공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진영 시기구분안에서 I~III기에 해당된다(김진영 2018).

## 2. 절대연대

고고학에서 과학적 연대측정법이 활발해진 이후에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반영하는 연구경향이 강하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시각 차이는 여전하지만, 하나의 첩터로 자리매김한 것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의 신뢰도가 95%이상인 경우에도 100~300년 정도의 간격을 갖고 있어서 상대연대와 일치하지 않는 듯하지만, 보정연대의 상한과

하한도 50~300년 정도 시간적 간격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연대와 일치하는 범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전남 서부지역			전남 동부지역		
	유적 및 유구	절대연대	출토유물	유적 및 유구	절대연대	출토유물
2400	광주 수문 5호 주	2610±50	신항동식토기, 무문토기			
	회순 대곡리 적석목관묘	2560±120	청동유물일괄			
2300		2400±50				
		2470±50				
2200		2200±90				
		2170±50				
2100	광주 수문 8호(송,주)	2310±60				
	니주 문곡동 I-청-4호(송,주)	2380±60				
2000	광주 평동 A-60호 주	2310±60		곡성 대평리 16호 주	2270±40	무문토기(자부,어망추,흙도구연부, 석촉)
	광주 평동 A-87호 주	2310±50		곡성 대평리 17호 주	2290±40	무문토기(자부,어망추,삼각형석도)
	광주 평동A495호 수혈	2290±60		곡성 대평리 23호 주	2180±40 2190±40	무문토기(자부,어망추)
	광주 평동A368호 수혈	2200±60		곡성 대평리 27호 주	2240±40 2205±40 1960±40	무문토기,삼각형석도, 유구석부
2100	니주 문곡동 I-청-18호	2130±60	원형A2식,무문토기, 석촉	보성 조성리 월평 4-1호 주	2190±50	무문토기, 흙도
	니주 문곡동II-7호 수혈	2110±50	흑도장경호A I 식, 밭	여수 화동리 안골 17호 석곽	2120±30	
	광주 신촌 II-7호 수혈	2130±50	무문토기	여수 화동리 안골 39호 원형유구	2150±60	
2000				여수 화장동 가-3호 주	2150±30	
	광주 평동 B-3호 주	2010±50		여수 화장동 나-27호 주	2100±40	
				곡성 대평리 45호 수혈	2050±30	무문토기, 고배대라
				여수 화동리 안골 26호 석곽	2040±50	석촉, 어망추
1900				여수 화동리 안골 28호 석곽	2020±20	무문토기, 석검, 어망추
				여수 화장동 나-8호 주	2020±60	
	광주 신장동 2007-IV-4호 주	1980±60		곡성 대평리 50호 수혈	1960±30	무문토기
				곡성 대평리 1호 소성유구	1950±40 1950±30	
				곡성 대평리 토기가마 연소부	1970±40	
				곡성 대평리 토기가마 소성부	2160±30	
				곡성 대평리 토기가마 천정부	2270±40	
1800				곡성 대평리 토기가마 천정부	1940±30	
				광양 칠성리 3호 주	1930±40	
				광양 칠성리 22호 주	1960±80	
			광양 인동리 인동 6호 주	1980±30		
			광양 칠성리 12-4호 주	1810±60		
			광양 인동리 인동 7호 주	1874±24		
			광양 인동리 인동 15호 주	1724±22		

도 2.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절대연대

### Ⅲ. 지형 및 권역 설정

#### 1. 권역설정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지형, 기후, 토양 등과 같은 자연환경은 인간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인문환경을 결정한다. 전남지역은 대한민국 남서단 일대를 아우르는 행정구역으로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전라남도라 칭해졌다. 이러한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에는 『산경표(山經表)』에서 확인되는 1대간(大幹)과 1정간(正幹), 그리고 이로부터 가지 친 13정맥(正脈)으로 우리 조상들의 산줄기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전남은 북쪽에서 뻗어 내린 호남정맥에 의해서 동-서로 크게 갈라져서 전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전남지역의 지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바다와 접해 있는 지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남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색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은 지형적으로 산지지형의 특색과 평야지형의 특색이 반영된 곳이며, 서쪽은 평야지형을 이루고, 동쪽은 산지지형을 이룬다. 지리적으로는 서쪽과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해 있어 해안지형을 이루며,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은 대륙과 해양이 제공해주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초기철기시대에는 해양을 이용한 신통로가 열리는 시기이며, 이로 인하여 유적의 입지조건에 대륙과 해양의 특색이 반영됨으로써 인문환경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해양적 특색을 반영하였다.

지형적 특색에 따라서는 호남정맥에 의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구분되고, 서부지역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수계를 이루며, 동부지역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분수계를 이룬다. 지리적 특색에 따라서는 내륙권과 해안권으로 세분되며, 서부내륙권과 서부해안권, 동부내륙권과 동부해안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전남지역 공간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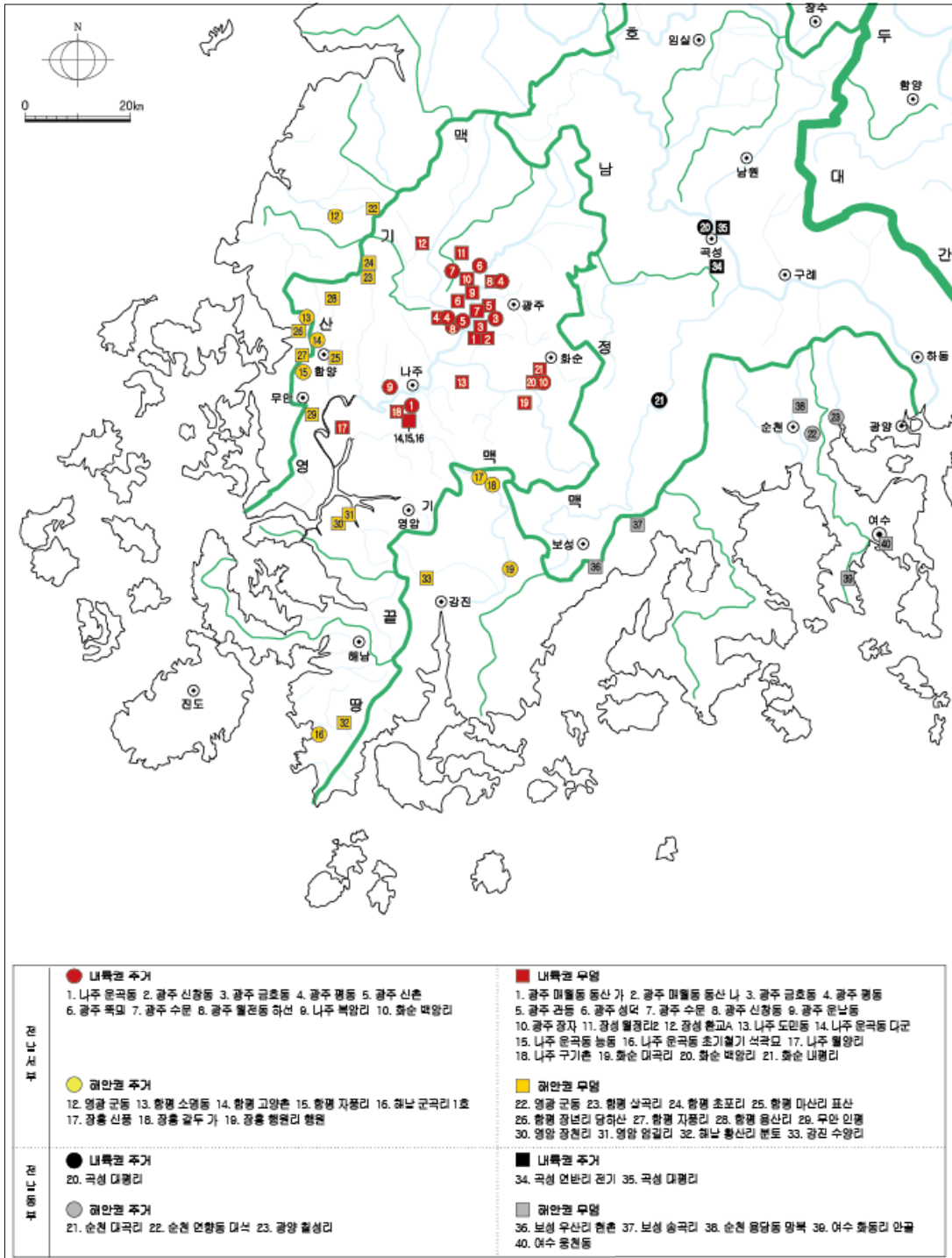
구분	서부지역			경계	동부지역		
	내륙권	경계	해안권		해안권	경계	내륙권
해당지역	담양, 장성, 광주, 나주, 화순, 함평 일부	방장산 (743m) -장암산 (482m) -승달산 (318m)	영광, 함평 일부, 신안, 목포, 영암, 진도, 해남, 강진, 장흥,	추월산 (731m) -백아산 (810m)- 모후산 (919m)- 가지산 (510m)- 천관산 (723m)	보성일부, 순천일부, 여수, 광양	초암산 (576m) -백운산 (1,222m)- 구봉산 (472m)	곡성, 구례, 보성 일부, 순천 일부

먼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구분은 추월산(해발 731m)-백아산(해발 810m)-모후산(해발 919m)-가지산(해발 510m)-천관산(해발 723m)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경계를 이룬다.

전남 서부지역은 범영산강유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륙권과 해안권으로 구분되는데, 그 경계는 추월산(해발 731m)-방장산(해발 743m)-장암산(해발 482m)-승달산(해발 318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구분하였다. 내륙권은 영산강의 중·상류에 해당되는 담양, 장성, 광주, 나주, 화순, 함평 일부 등이 해당된다. 해안권은 해안과 접한 곳으로 영산강하류가 포함된 영광, 함평 일부, 신안,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완도, 강진, 장흥이 해당된다. 장흥은 지리적으로 전남 서부와 동부지역의 접이치대에 해당되는 곳으로 고고학적 양상에서도 확인되지만, 전남 서부지역과의 유사성이 더 크고, 일부 지석묘가 배모양으로 채석된 점등으로 보아 해양권으로 판단하였다.

전남 동부지역은 범섬진강유역권으로 내륙권과 해안권으로 구분되는데, 그 경계는 천관산(해발 723m)-모후산(해발 919m)-백운산(해발 1,222m)-구봉산(해발 472m)으로 이어지는 서-동방향의 산줄기로 구분하였다. 내륙권은 곡성, 구례, 보성 일부, 순천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해안권은 보성일부, 고흥, 순천일부, 여수, 광양이 해당되고, 장흥의 천관산(해발 723m)에서 경남 하동의 섬진강 하구까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산줄기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지방의 동일한 생활 문화권역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 같은 구분은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즉 산줄기는 물을 건너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이어진다는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의 원칙과도 상통한다. 물길을 통한 사람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으로써 바다는 단순한 생계경계가 아닌 생산경제로의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이전 시대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경관을 제시해 주었다. 신통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를 연결해 주었고, 대내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도 4.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분포도

### 3. 분포유형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점유양상은 분포 수와 유물상에 따라 정리되며,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 거점형(I형) : 집중적이거나 대규모로 확인되는 사례로 유물상으로 보아서는 광주 신창동저습지나 용관묘지와 해남 군곡리폐총 등이 해당되지만, 확인된 주거지나 무덤의 수는 대부분 5기 미만이다. 외래유물 등과 같이 유물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포함하였다.
- 현지화형(II형) : 토착의 송국리취락이나 지석묘 등에서 확인되는 사례로 5기 미만의 점상분포를 보인다.
- 단일형(III형) : 단일로 주거군이나 무덤을 형성하고 점상과 면상분포를 이룬다.

## IV. 유적 검토

### 1. 주거지

주거지는 인간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곳으로 생활의 흔적이 녹아든 공간이다. 전남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로 조사된 것은 많지 않으며, 소규모이고, 주변에서 수혈들과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수혈들 중에는 평면형태나 출토유물 등에서 주거지와 차이가 없는 주거용들이 확인되고, 주거지의 부속시설 등으로 보이는 것들도 상당하다.

전남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는 여러 형태가 혼재되며, 송국리형주거지, 원형계, 방형계 등이 확인된다. 점유유형은 거점형, 현지화형, 단일형이 모두 확인되고, 혼합되어 확인되기도 하며, 주거지로 확인된 경우는 대체로 점상분포를 보이지만 수혈군이 확인된 경우는 면상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 1) 서부지역

表 2. 전남 서부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구분	입지	내용	유물	점유 유형	동범위		비고	
					유구	유물		
서부지역 내륙권	나주 운곡동	구릉	송국리형 I기 수혈 7기	송:원형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석촉, 지석, 연석 수: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등	II형	송국리형취락 지석묘 저습지	원형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두형토기 등	1·II기
	광주 신창동	구릉	원형/화덕, 중심주공	군곡리식토기	II형	저습지 용관묘군 환호, 토기가마 등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외래유물 등	2·III기
	광주 금호동	구릉	수혈	무문토기, 두형토기, 석부	III형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석기	II기

구분	입지	내용	유물	점유 유형	동범위		비고	
					유구	유물		
광주	평동	평지	방형/주공, 수혈 85기	주: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수: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흑도, 군곡리식토기, 시루, 소형토기 등	I·II형	송국리형취락 토광묘	무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석기 등	2·III기
	신촌	평지	수혈 2II기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흑도, 무문토기, 파수	III형	구		2·III기
	뚝피	구릉	(원형)/벽구, 벽주공	조합식파수, 두형토기, 발	III형	-	-	III기
	수문	구릉	송국리형 수혈	송: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수: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개 등	II형	송국리형취락	무문토기, 석기 등	2·III기
	월전동하산	평지	수혈8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철기 등	III형	-	-	III기
	복암리	평지	수혈 23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등	I·III형	구	복골 등	2·III기
	백암리	구릉	송국리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석기, 옥	II형	적석목관묘 송국리형 주거지	청동기류 일괄 무문토기 등	III기
	삼천리 황새봉	평지	송국리형 원형III기/ 노지, 벽구, 수혈	신창동토기, 군곡리식토기	II형	-	-	III기
	군동	구릉	방형 I기	무문토기, 지석	II형	토광묘 옹관묘 주구토광묘	흑도	III기
	소명동	구릉	송국리형	무문토기, 개, 석기 등	II형	송국리형취락	무문토기, 석기 등	III기
해안권	고양촌	구릉	수혈 24기	신창동식토기, 두형토기, 무문토기, 소형토기, 시루 등	III형	석관묘		III기
	자풍리	구릉	수혈 11기	두형토기, 장경호, 개, 석축 조합식파수, 우각형파수	III형	토기가마 주구	두형토기 등	III기
	군곡리 1호	구릉	원형	신창동식토기, 두형토기, 시루, 파수부토기	III형	패총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등	III기
	신풍	구릉	수혈II기(원형 부정형), 2, 4호	원형점토대토기, 석기	II형	송국리형취락 지석묘	무문토기, 옥, 석기 등	II기
	갈두 가	구릉	송국리형 III기	원형점토대토기, 무문토기, 석좌, 석축	II형	송국리형취락 지석묘	무문토기, 석기	II기
	행원리 행원	구릉	(방형계)/바닥다짐	신창동식토기, 파수부호, 군곡리식토기, 소형토기	III형	-	-	III기

먼저 전남 서부지역은 전남지역의 양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다. 서부내륙권은 전남지역에서 점유양상이 가장 높은 권역이며, 11개소가 조사되었다. I~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되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상류쪽인 광주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주거지는 광주와 나주에서 주로 조사되었고, 점유양상은 대부분 현지화형을 보이지만, 단일형도 확인된다, 송국리형주거지와 수혈 등이 확인되고 있다. I기 유적은 나주 운곡동 수혈(타원형)에서 확인되었고, 동시기의 저습지 등 확인되기도 하였다. II기 유적은 나주 운곡동유적에서는 II-33호 송국리형주거지(원형)와 광주 평동유적과 광주 수문유적, 광주 신촌유적 등에서는 확인된 수혈이 있고, 동범위 내에 거리를 두고 송국리형취락과 공존한다. 광주 평동과 광주 수문유적의 점유양상은 송국리형주거지가 분포하는 범위의 외곽에 분포하고, Ⅲ기에는 송국리형취락 내로 현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광주 평동유적에서 수혈군은 5개 정도의 밀집된 군을 이루며 분포하는데, 수혈이 밀집되는 부분에서는 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광주 신촌유적은 단일형에 속하며, 동범위내에서 수혈 2개군이 500m정도의 거리를 두고 확인되었는데, 수혈의 규모나 평면형태 등에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 수혈군들은 1~II기에 속하는 구가 수혈군을 둘러싸는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계 혹은 구획의 의미로 해석되며, 미조사지역으로 유적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 신촌의 구들은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새로운 구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경계를 위한 공간분할, 방어, 배수 등과 관련된 수로의 기능을 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 북암리유적에서도 수혈과 구 등이 유사하게 확인되었고, 5기의 구가 2~8m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중으로 유구들을 둘러싸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계, 방어 등의 환호 또는 환구시설로 추정된다.

Ⅲ기는 광주 신창동, 광주 평동, 광주 신촌, 나주 북암리 등에서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가지고 확인되는 사례들이 많다. 점유유형은 거점형도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광주 평동유적에서는 거점형과 현지화형이 혼합되어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단일형은 대부분 수혈로 보고된 유적들로 유구수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II기에 비해 규모가 커지고, 하천과 인접한 평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광주 월전동 하선, 광주 신촌 등이 해당된다. 현지화형은 구릉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광주 수문, 화순 백암리 등이 있다. 광주 평동과 광주 수문유적에서는 II기에 송국리형주거지 외곽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Ⅲ기에는 송국리형주거지군 내로 들어오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광주 평동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의 특징적 요소들이 이탈하거나 노지가 확인되거나 평면형태가 이형화되는 등 매우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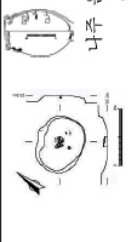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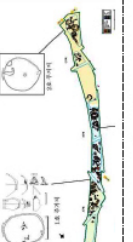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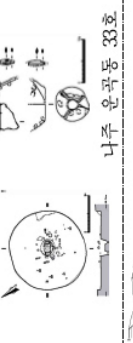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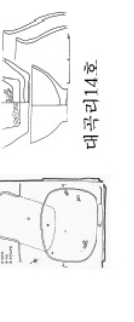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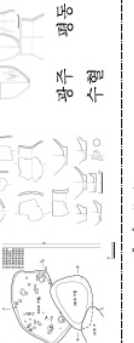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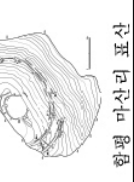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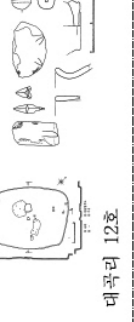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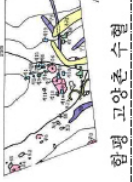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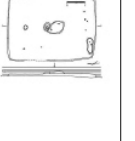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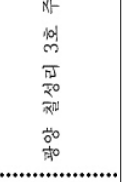
서부해안권에서는 8개소가 조사되었고, 양상은 서부내륙권과 유사하며, 원형계와 방형계,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II기와 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된다. II기 유적은 장흥 신평과 갈두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점유양상은 현지화형에 속한다. 장흥 신평유적에서는 2호(원형)와 4호(부정형) 수혈이 확인되었고, 장흥 갈두유적 가군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인 4호(방형)·7호(장방형)·9호(원형)주거지가 있다. 장흥 건산리유물산포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등이 수습되었고, 해남 군곡리패총 I기층도 있지만 관련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Ⅲ기 유적은 함평 소명동과 함평 고양촌, 영광 군동 등으로 현지화형과 단일형이 확인된다. 함평 고양촌유적은 수혈 내에서 시루 등과 같은 일상용기가 확인되어 대부분 주거용으로 볼 수 있고, 함평 자풍리유적의 수혈은 주거용도 일부 있지만 규모와 형태 등에서 주거지보다는 관련 부속시설로 추정된다.

## 2) 동부지역

동부지역에서는 3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수적으로는 서부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확인되는 양상은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 내륙권에서는 곡성 대평리와 순천 대곡리유적 등이 조사되었으며, II기와 III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된다. II기 유적은 곡성 대평리유적이 해당하고, 일부 송국리형주거지와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점유유형은 단일형으로 추정되고, 환호, 목책열, 무덤 등이 동범위 내에서 면상분포를 보인다. 주거지 II기와 다수 수혈에서 원형점토대토기 A2식과 두형토기 A식과 B식, 조합식과수, 뚜껑, 소형토기, 석기류 등이 일상용기들이 다수 출토되었으나, 상당수의 수혈은 평면형태 등에서 주거용보다는 부속시설 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7호 수혈에서는 소토부가 확인되어 주거용으로 보이고,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는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고, 소성유구는 서부해안권의 함평 자풍리 신평에서 확인된 토기가마와 유사하다. III기 유적은 순천 대곡리에서 확인되었으며, 장방형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해안권에서는 III기 유적이 확인되며, 순천 연향동대석유적의 송국리형주거지로 그 이후까지 존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表 3. 전남 동부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구분	입지	내용	유물	점유유형	동범위		비고
					유구	유물	
동부지역	내륙권	곡성 대평리	평지	장방형 원형/부뚜막식 수혈	원형점토대토기, 조합식과수, 소형토기 등	송국리형취락, 토기가마, 수혈, 주구토광(석관)묘	II기
		순천 대곡리	평지	장방형/	뚜껑, 무문토기 등		III기
	해안권	순천 연향동 대석	구릉	송국리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송국리형취락	III기

구분	서부		동부	
	내륙권	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I	 나주 운곡동 5호 수혈		 곡성 대평리 23호	
	 나주 운곡동 33호	 함평 소명동 3호 주	 대구리 14호	
II	 광주 평동 수혈	 함평 마산리 표산	 대구리 12호	
	 광주 신흥동 2호 수	 함평 고양촌 수혈	 곡성 대평리 17호 주	
III	 광주 수문 4호 주	 광주 수문 5호 주	 대구리 한질 43호	 광양 칠성리 3호 주

도 5.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시기별 주거

## 2. 무덤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당대 사회가 지닌 무형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무덤은 지석묘, 적석목관묘, 석관묘 등의 돌무덤계와 토광묘, 주구(석개)토광묘 등의 토광묘계, 옹관묘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점유양상이나 분포상 등에서 주거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 1) 서부지역

表 4. 전남 서부지역 초기철기시대 무덤

구분	입지	돌무덤계			토광묘계		옹관묘	점유양상	동범위	출토유물	비고	
		지석	적석목관	석관(곽)	토광	주구토광						
서부 내륙권	광주 매월동 동산 가	구릉	1 석곽					II형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편	II기	
	광주 매월동 동산 나	구릉	2 토광, 석곽					II형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편, 두형토기편 무문토기편, 석재	II기	
	광주 금호동	구릉			(1)			II형	지석묘	청동편, 저부편, 이형석기, 지석	II기	
	광주 평동				1			II형		무문토기, 석기		
	광주 관동	구릉			1			II형		원형점토대토기	II기	
	광주 성덕	구릉			7			II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등	III기	
	광주 수문	구릉			2			II형		신창동식토기2, 뚜껑, 방추차, 흑도장경호, 장경호2	III기	
	광주 신창동	구릉					53	I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파수부호, 석축, 석부 등	III기	
	광주 운남동	구릉					4	III형		신창동식토기, 무문토기, 파수부호 등	III기	
	광주 장자	구릉					3	II형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무문토기	III기	
	장성 월정리II	구릉				2		III형		석검, 편평촉2, 흑도장경호 등	III기	
	장성 환교A	구릉				1		III형		무문토기편	II기	
	나주 도민동	구릉				1		III형		원형점토대토기	II기	
	나주 운곡동 다군	구릉	1					II형	지석묘 채석장	세형동검편, 석촉, 철착 지석 등	II기	
	나주 운곡동 능동	구릉	1									
	운곡동 초기철기석곽묘			1	보고서				III형		원형점토대토기	II기
	나주 월양리	구릉	1	2	1				II형	지석묘	지:신창동식토기편 관:석검편	2·III기



구분	입지	돌무덤계			토광묘계		옹관 묘	점유 양상	동범위	출토유물	비고	
		지석	적석 목관	석관 (곽)	토광	주구 토광						
해안권	나주 구기촌	구릉			10			I형		신창동식토기, 군곡리식토기, 철서, 철모, 철부, 철검, 검파두식, 삼각형동기, 검초부속품, 칠기테두리금구, 검파두식, 우각형동기 등	III기	
	화순 대곡리	구릉	1					I형		세형동검5, 팔두령2, 쌍두령1, 동부, 세문경2, 동사	II기	
	화순 백암리	구릉	1					I형		세형동검3, 동과, 세문경, 석촉, 관옥, 흑도편	II기	
	화순 내평리	구릉			1			III형	구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토기편, 저부편	II기	
	함평 상곡리	구릉	1	1				I형		경형동기	I기	
	함평 초포리	구릉	1					I형		세형동검5, 중원식동검, 동과3, 동모2, 유건동부, 동사, 동착, 간두령, 쌍두령, 병부동령, 지석, 검파두식, 세문경, 곡옥	II기	
	영광 군동	구릉				2	1	1	III형		원형점토대토기, 개, 석기, 흑도	II·III 기
	함평 마산리 표산	구릉			1 군집	1			III형	주거지 환호 등	관:원형점토대토기편 등 토:흑도장경호저부, 저부, 세형동검편	II·III 기
	함평 장년리 당하산	구릉				2		3	III형		토:군곡리식토기 호 용:무문토기, 파수부호 등	III기
	함평 자풍리	구릉				1	주구만 3		III형		토:신창동식토기, 흑도장경호 주:신창동식토기, 두형토기, 군곡리식토기, 봉상파수, 석기 등	III기
	함평 용산리	구릉			4 석개3				III형		석촉, 관옥, 토기편	II·III 기
	무안 인평	구릉						1	III형		파수부용, 신창동식토기	III기
	영암 장천리	구릉	1						II형	지석묘	세형동검, 검파두식, 유구석부	II기
	영암 엄길리	구릉	1						II형	지석묘	신창동식토기, 흑도장경호	III기
	해남 황산리 분토	구릉			1				II형	지석묘	석검편	II기
강진 수양리	구릉	1						II형	지석묘	두형토기편	II기	

서부지역에서는 33개소가 조사되었고, 분포비중 등 여러 면에서 서부지역의 주거지와 양상과 유사하다. 서부내륙권에서는 21개소가 조사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Ⅱ기와 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되며, 광주와 나주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Ⅱ기에는 지식묘, 토광묘, 적석목관묘 등이 확인되고, 점유양상은 현지화형과 단일형, 거점형이 확인된다. 현지화형은 지식묘에서 확인되며 광주 매월동지석묘, 나주 운곡동 지식묘, 나주 월양리 지식묘 등이 있다. 대부분 매장주체부 주변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이나 두형토기편 등이 출토되고 있다. 나주 월양리지석묘에서는 매장주체부에 적석목관묘 등의 요소가 확인되기도 한다. 단일형은 토광묘와 적석목관묘가 Ⅰ기 정도 확인되는 점상분포를 보인다. 거점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적석목관묘에서 확인되고, 화순 대곡리 등에서 발달된 청동기가 일괄로 출토되었다. 단일형은 토광묘에서 확인되고, 나주 도민동과 화순 내평리, 광주 평동 등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Ⅲ기에는 옹관묘가 새롭게 나타나는데, 광주 신창동옹관묘군에서 수적으로 거점형을 이루고,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 운남동, 광주 장자 등으로 연결되며 5기 미만이 단일형을 이루며 분포한다. 나주 구기촌에서는 토광묘 10기로 구성된 집단묘가 출현하고, 2군 철기를 중심으로 하는 부장상을 보인다.

서부해안권에서는 12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인 양상은 서부내륙권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묘제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다. Ⅰ~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된다. Ⅰ기 유적은 함평 상곡리석관묘 등이 해당되고, 경형동기 4점이 출토되었고, 인접하여 적석목관묘가 함께 조사되었으나 유물은 부장되지 않았다. Ⅱ기 유적은 함평 초포리의 적석목관묘와 영광 군동 토광묘, 함평 마산리 표산 석관묘, 영암 장천리 지식묘, 강진 수양리 지식묘, 해남 황산리분토 등이 해당된다. 함평 초포리 적석목관묘는 청동기류를 비롯한 14종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서부내륙권의 화순 대곡리와 유사하나, 더 다양한 구성을 이룬다. 영광 군동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A2-a식은 전남지역 토광묘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또 함평 마산리 표산 석관묘에서도 유사한 원형점토대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영암 장천리 지식묘에서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이 출토되었고, 강진 수양리지석묘에서는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해남 황산리 분토의 석관묘에서 출토된 석검편은 나주 월양리 23호 석관묘에서 출토된 것과 석질과 형태가 동일하고, 유구구조도 유사하다. Ⅲ기 유적은 영광 군동, 함평 마산리 표산, 영암 엄길리지석묘, 강진 수양리 지식묘, 무안 인평, 함평 당하산 등이 해당된다. 영광 군동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주구토광묘가 조사되었고, 무안 인평과 함평 장년리 당하산 등에서는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함평 용산리에서는 석개토광묘들이 조사되었는데 부장유물이 없어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개석사이에서 칼문이 시문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 2) 동부지역

동부지역에서는 7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유적의 수적으로는 서부지역과 차이를 보이지만, 유사한 측면이 확인된다. 동부내륙권에서는 Ⅱ~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곡성에서 확인되었다. Ⅱ기 유적은 곡성 연반리 전기 지식묘와 곡성 대평리 등에서 확인된다. 곡성 대평리에서는 주구토광묘가 군집을 이루며 확인되었는데, Ⅲ기에 중심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원형점토대토기편 등이 출토되어 상황될 가능성도 있다. 6호 주구토광묘의 주구에서 조합식파수와 지석이 출토되었고, 15호(매장주체부 확인안됨) 주구(원형)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이, 11호에서는 매장주체부 내

퇴적토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이 출토되었고, 주구에서 완형의 발(저부 투공), 다면옥, 유리옥 12점, 석옥 1점, 삼각형석도,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영광 군동 18호 주구토광묘와 유사한 폐쇄형의 주구를 가진 주구토광묘(19호, 22호, 32호)가 확인되었다. 19호에서는 단경호 1점과 유리옥 6점과 환옥 1점이 부장되었는데, 단경호는 북단벽쪽에서 정지된 채 부장되어 영광 군동 흑도와 형태적으로나 부장된 양상이 거의 동일하다. 22호와 32호에서는 토광묘의 퇴적토에서 저부편이 출토되었을 뿐 부장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주구토광묘 중 16호(폐쇄형)와 20호는 석개를 사용하여 토광묘 상부를 덮었고, 매장주체부에서 부장유물은 없고, 16호 개석사이에서 관옥 1점이 출토되었고, 20호에서는 주구 내에서 삼각형석도편이 출토되었다.

동부해안권에서는 Ⅱ~Ⅲ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확인되었으며, 수적으로 미약하다. Ⅱ기는 서부해안권과 인접한 보성 송곡리지석묘 등에서 확인되고, 여수 화장동 안골 지석묘에서 확인된다. Ⅲ기에는 보성 우산리 현촌과 여수 웅천동에서 토광묘 등이 확인된다. 보성 우산리 현촌에서는 신창동식토기, 세형동검2, 동모, 검과두식, 재갈편, 석촉, 주조철부, 철착이 부장되었고, 여수 웅천동 토광묘는 지석묘와 나란히 축조되었는데, 세형동검이 부장되었다.

表 5. 전남 동부지역 초기철기시대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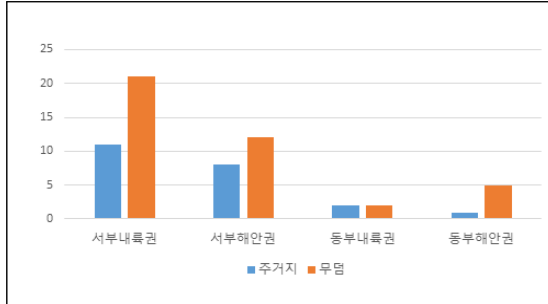
구분	입지	돌무덤계			토광묘계		옹관 묘	점유 양상	동범위	출토유물	비고
		지석	적석 목관	석관 (곽)	토광	주구 토광					
동부	내륙권	곡성 연반리 전기	구릉	2				Ⅱ형	지석묘	뚜껑, 홍도편, 무문토기편, 삼각형석도	Ⅱ기
		곡성 대평리	평지			1	11 석개2	Ⅲ형		조합식과수, 석기류, 옥, 어망추 등	Ⅱ·Ⅲ기
	해안권	보성 우산리 현촌	구릉			3		Ⅰ형		신창동식토기, 세형동검2, 동모, 검과두식, 재갈편, 석촉, 주조철부, 철착	Ⅲ기
		보성 송곡리	구릉		1			Ⅱ형	지석묘	원형점토대토기편	Ⅱ기
		순천 용당동	구릉			1		Ⅱ형		신창동식토기, 홍도	Ⅲ기
		여수 화동리 안골	구릉	4				Ⅱ형	지석묘		Ⅱ기
		여수 웅천동	구릉			1		Ⅱ형	지석묘	세형동검	Ⅲ기

구분	서부		동부	
	내륙권	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I	<p>화순 대쪽리 평주 평동 나주 월양리 2호 동 평주 수문 나주 안곡동 다-1 호지 나주 신장동 평주 신장동 평주 오관표지</p>	<p>함평 상곡리 석판묘 영광 B-4호 토 함평 마산리 묘산 4-3호 석판묘 영암 장천리 1호 지 해남 황산리 분토 영광 군동</p>	<p>곡성 연반리 전기 1호 지 곡성 대평리 9호 19호 주토 16호 주토</p>	<p>송곡리 1호석 보성 화동리 안골 지 여수 용천동 토 보성 우산리 현존 토 순천 용담동 당부</p>
II	<p>평주 평동 나주 월양리 2호 동 평주 수문 나주 안곡동 다-1 호지 나주 신장동 평주 신장동 평주 오관표지</p>	<p>함평 상곡리 석판묘 영광 B-4호 토 함평 마산리 묘산 4-3호 석판묘 영암 장천리 1호 지 해남 황산리 분토 영광 군동</p>	<p>곡성 연반리 전기 1호 지 곡성 대평리 9호 19호 주토 16호 주토</p>	<p>송곡리 1호석 보성 화동리 안골 지 여수 용천동 토 보성 우산리 현존 토 순천 용담동 당부</p>
III	<p>평주 평동 나주 월양리 2호 동 평주 수문 나주 안곡동 다-1 호지 나주 신장동 평주 신장동 평주 오관표지</p>	<p>함평 상곡리 석판묘 영광 B-4호 토 함평 마산리 묘산 4-3호 석판묘 영암 장천리 1호 지 해남 황산리 분토 영광 군동</p>	<p>곡성 연반리 전기 1호 지 곡성 대평리 9호 19호 주토 16호 주토</p>	<p>송곡리 1호석 보성 화동리 안골 지 여수 용천동 토 보성 우산리 현존 토 순천 용담동 당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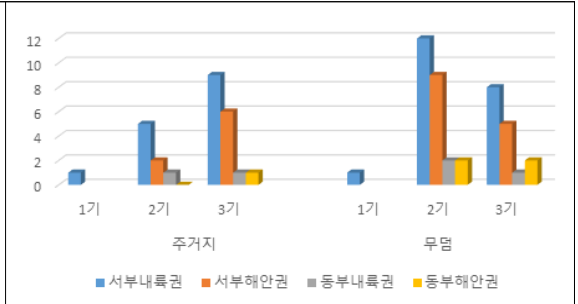
도 6.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시기별 무덤

### 3. 주거지와 무덤의 관계

전남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와 무덤은 분포는 전체적으로 서부지역에 집중되고, I기의 유적들도 서부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II기가 되면 전남지역 전역에서 확인되지만 여전히 서부지역에 편중되고, 이러한 현상은 III기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주거와 무덤은 이원화되어 조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일정한 공간에 분포하는 집약도도 낮다.



도 7. 전남지역 권역별 비중



도 8. 시기별 주거와 무덤 비중

주거군과 무덤군의 연관성을 살피기에는 지금의 자료로는 허술한 부분이 있으며, 현재까지 주거군과 무덤군이 연관성을 갖고 확인되는 유적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유적명	생활유구				무덤						비고	
		송국리형	원형계	방형계	수혈	돌무덤계			토광묘계		옹관묘		
						지석묘 및 석곽	석관묘	적석목관묘	토광묘	주구토광묘			
서부	내륙권	광주 수문	◎	-	-	◎	-	-	-	◎	-	-	
		광주 월전동	-	-	-	◎	-	-	-	-	-	-	
		광주 금호동	-	-	-	◎	-	-	-	◎	-	-	
		광주 평동	◎	-	-	◎	-	-	-	◎	-	◎	
		광주 신촌	-	-	-	◎	-	-	-	-	-	-	
		월전동 하선	-	-	-	◎	-	-	-	◎	-	-	
		나주 운곡동	◎	-	-	◎	◎	-	-	-	-	-	
동부	해안권	화순 백암리	◎	-	-	-	-	-	◎	-	-	-	
		함평 고양촌	-	-	-	◎	-	-	-	-	-	-	
		함평 자풍리	-	-	-	◎	-	-	-	◎	주구	◎	
		군곡리	-	◎	-	-	◎	-	-	-	-	-	
	내륙권	곡성 대평리	-	◎	-	-	-	-	-	-	◎	-	

전남지역에서는 상당수 유적들이 조사되었지만, 주거지와 무덤을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례는 드물다.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 송국리형주거지와 토광묘, 원형계주거지와 주구(석개)토광묘 등이 확인되며,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토착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혼재되는 현지화형으로 확인되고 있다.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1~Ⅲ기 이후까지도 확인되는데,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은 여러 곳에서 조사되며, 나주 운곡동유적을 통하여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나주 운곡동에서 I 지구에서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형식의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된 수혈(타원형)이 송국리형취락(구릉 능선부를 따라 분포)과 10m 정도 떨어진 동일한 구릉상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으로는 다수의 지석묘군이 분포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추론할 만한 자료는 없다. 하지만 같은 구릉에서 Ⅱ기에 수로와 저습지에서 흑도장경호와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남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Ⅱ지구 구릉의 송국리형주거지와 의례행위와 관련된 폐기장 기능의 수혈도 확인되고, 운곡동 지석묘 다군 1호에는 철착을 바닥석 아래에 부장하였고, 적석 내에 원형점토대토기 한 개체를 부장한 무덤이 확인되었다. 또한 채석장에서는 철제도구를 이용해 시문된 암각화들이 있고, 능동지석묘군에서는 동일한 세선문을 지석에 시문하였다.

송국리형주거지 또는 수혈과 토광묘의 관계는 광주 수문, 광주 평동, 광주 월전동 등에서 확인되는데, 송국리형주거지군이 분포하는 주변에 인접한 수혈들에서 확인되는 경향이 있다. 광주 평동유적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에서 변이성이 확인되고, A-390호와 415호 수혈에서 야요이계토기(판부식)이 출토되었고, A-310호 수혈에서는 벚짚으로 만든 돛자리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신창동식토기 등이 출토되거나 다수의 수혈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와 무문토기, 석기류 등이 공반되었지만, 이에 비해 관련 무덤은 토광묘로 소수에 불과하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석관묘나 군곡리식토기를 사용한 10여기의 옹관묘 등을 포함하더라도 수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한편, 화순 백암리에서는 적석목관묘와 인접하여 송국리형주거지가 중첩되어 확인되었는데, 후행하는 상층주거지에서 신창동식토기가 출토되었다. 하층과 상층 주거지의 시간적 차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층 주거지에서 황갈색사질점토층이 상층 주거지의 바닥 정지면으로 확인된 점과 타원형구덩이와 양단주공의 위치가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층 주거지가 폐기된 후, 바로 상층주거지가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조현중·은화수 2005, 33). 따라서 하층 송국리형주거지는 백암리 적석목관묘와 동시기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형계주거지와 주구(석개)토광묘의 관계는 곡성 대평리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송국리형주거지들이 확인되었으나 동시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에 비해 무덤군의 양상이 월등하고, 환호나 목책열 등이 조사되어 유적은 이전 시기에 보기 힘든 취락의 면모를 갖추었고, 무덤군의 존재로 보아서는 조사지가 확장조사된다면 대규모 주거군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곡성 대평리에서는 새로운 양상의 주거와 무덤과의 관계가 제시된 유적으로 새로운 집단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서부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보이는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주구토광묘가 초출한 영광 군동에서는 동범위 내에서 방형계주거지와 함께 확인된 바 있으며,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가능성은 언급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해남 군곡리에서 원형계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지석묘가 기원후에도 존속하는 것이 확인

되기도 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다수의 주거지와 무덤이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에 대한 해석적 접근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주거지든 무덤이든 토착문화를 기반으로 신요소들을 수용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주거영역과 매장영역 등 취락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은 서부지역에서는 광주 평동이, 동부지역에서는 곡성 대평리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 두 유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양상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다른 시대에 비하여 집약된 자료가 많지 않아 양상과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남 서부지역에 집중되고, 여러 유형의 요소들이 혼재되어 1~2기 정도가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은 명쾌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역시 선사사회에서 고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모습이며, 복잡다기한 시대적 상황이 당대의 고고자료에는 내재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